

제2회 포천민속경기대회 줄다리기 · 새끼꼬기

줄다리기 관인면 1등 · 영북면 2등 차지

새끼꼬기 1등 이창묵(소흘읍) · 2등 김광섭(군내면) · 3등 권영호(관인면) · 4등 이정춘(화현면)

줄다리기는 각 읍면동의 단결력과 화합의 의지를 다지는 단체경기다. 줄다리기에 참가하는 읍면동은 영북면, 영중면, 일동면, 소흘읍, 가산면, 화현면, 관인면, 창수면 등 14개 읍면동중에서 8개 읍면이 참가했다.

대진표 추첨에 따라 영중면과 일동면이 경기를 해 일동면이 이겼으며 관인면과 창수면이 줄다리기를 실시해 관인면이 이겼다. 나머지 읍면은 부전승으로 다음경기에 출전했다. 일동면과 소흘읍이 경기를 실시해 일동면이 이겼고 가산면과 화현면이 경기를 실시해 화현면이 이겼다. 나머지 두 팀은 부전승으로 올라 영북면과 일동면, 화현면과 관인면이 준결승전을 치르게 되었다.

영북면과 일동면과의 경기는 영북면이 이겼고 화현면과 관인면의 경기는 관인면의 승리로 돌아가 영북면과 관인면이 결승전에서 맞붙게 되었다.

3.4위전은 일동면과 화현면 경기를 실시해 일동면이 3위를 차지하고 화현면이 4위를 차지했다. 결승전은 영북면과 관인면의 경기가 진행되었으며 관인면 1위를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대회에서 줄다리기 우승을 차지한 관인면은 가장 먼저 선수명단을 접수하는 등 이번대회에 의욕적인 참여로 화합과 단결의 상징인 줄다리기 경기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 것이다.

줄다리기 1등은 상금 50만원과 트로피를 수상했고 2등은 상금 30만원과 트로피, 3등은 상금 20만원과 트로피, 4등은 아차상으로 상금 10만원을 각각 수상했다.

새끼꼬기는 제2회 포천민속경기대회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대회로서 각 읍면동에서 각 1명씩을 선수로 선발하여 읍면동 대항으로 실시했다.

주어진 5분 동안에 가장 길게 새끼를 꼬아야 승리할 수 있는 경기로 14개 읍면동 선수가 동시에 시작하여 실시하는 기록경기다.

새끼는 농경시대 이후부터 널리 쓰였고 조선시대에는 새끼나 줄 등을 나라에 조달하는 삭계(藁契)가 공인들의 공계(貢契)에 만들어질 정도로 쓰임새가 일반화되었다.

새끼꼬기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있다. 이외용 예화집 돈이 보낸 편지중에서 나오는 이야기로 주인이 하인들을 자유의 몸으로 내보내기 전날인 설날 그믐날 하인들을 불러 마지막 부탁으로 새끼를 썬 꼬아 줄 것을 요구하고 가능하면 가늘고 질기고 길게 파 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자 어떤 하인들은 마지막까지 일을 시킨다고 투덜대기도 하는 등 불만이 고조돼 대충 새끼를 꼬았지만 착실한 하인들은 주인의 마지막 부탁을 존중하여 주인이 요구하는 대로 새끼를 꼬았다.

다음날 주인은 하인들에게 관문을 열고 그동안 수고했다며 어제 끈 새끼에 염전을 쬐어 그 돈으로 잘 들살기 바란다고 했다.

이번 대회 결과는 1등 이창묵(소흘읍) 2등 김광섭(군내면) 3등 권영호(관인면) 4등 모범상 이정춘(화현면)이 차지했다.

글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사진 지혁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새끼꼬기 부문에 참가한 한 노인이 빠른 손놀림으로 새끼를 꼬고 있다.



5분간의 새끼꼬기 경연을 마치고 우승자를 가리기 위해 진행요원들이 길이를 재고 있다.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새끼를 꼬고 있는 참가 선수.



새끼꼬기에 참가한 선수들을 격려하며 지켜보고 있는 시민들.



각 지역에서 '최고'라고 자부하는 새끼꼬기 선수들이 기량을 겨루고 있다.



관인면(좌)과 창수면(右) 줄다리기 선수들이 예선전을 치르고 있다.(왼편은 일동면과 소흘읍의 예선전)



관인면선수단이 줄다리기 우승 확정 후 환호하고 있다.



포천민속경기대회에 참가한 관인면 선수단은 줄다리기 1위, 제기차기 2위, 새끼꼬기 3위 등 각 부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